인율에 따른 민감도분석을 실시한다.

절과: 유방암선별촬영술 시작연령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40대에 시작하는 대안이 50대에 시작하는 대안에 비해 우월전략으로 나왔다. 40세를 시작연령으로 하는 대안 내에서 비교하였을 때 2년간격으로 유방암선별촬영술을 시행하는 것이 1년간격시행보다 더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나왔다. 2년간격으로 유방암선별촬영술을 시행하는 대안은 40세부터 50세까지는 1년간격으로 시행하고 50세이후는 2년마다 시행하는 대안보다도 비용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이들중 어느 대안도 선별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대안에 비해 우월하지는 못하였다.

결론: 한국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유방암선별촬영술은 40세를 시작 연령으로 해서 간격은 2년 단위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국내의 유방암 발생의 특징과 유방암선별촬영술 및 유방암 치료에 드는 비용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외국의 자료와 변수에 상당히 의존하였으므로 이 연구가 국내의 상황을 명확하게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향후 효율적인 암 선별검진의 지침을 구축하기 위해서 비용-효과분석의 기초가 되는 비용 및 임상자료의 체계적인 구축이 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KSPM-100

여성노인의 운동참여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지표 분석 The Effect of Exercise Program on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Variables in Elerly Women

<u>정은경'</u>, 이영훈', 신준호', 이정애' (1)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목적: 본 연구는 노인에게 일정기간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한 후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노인 건강증진에 효과적인 방안을 개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라남도의 일개 군에 있는 2곳의 경로당에 등록된 65세 이상의 노인들로 연령으로 짝짓기 한 실험군 22명과 대조군 21명이었다. 운동 프로그램은 실험군에게만 주 3회, 1년 동안 적용하였으며, 운동에 의한 시간에 따른 혈압, 심박동수, 혈청지질성분, 골대사 지표, 악력, 유연성, 민첩성, 통증정도, 삶의 질 지표 변화를 확인하고자 운동실시전, 운동 실시 3개월후, 운동 실시 1년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운동에 의한 시간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지표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안정시 이완기 혈압의 경우 실험군에서 운동실시전 88.05mmHg, 운동실시 3개월후 86.68mmHg, 운동실시 1년후 83.73mmHg로 대조군에 비하여 시간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혈청 HDL의 경우 실험군에서 운동실시전 43.09mg/dL, 운동실시 3개월후 47.36mg/dL, 운동실시 1년후 51.09mg/dL로 대조군에 비하여 시간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요중 DPD(deoxy-pyridinoline)은 실험군에서 운동 실시전 6.37nM/mM creatinine,운동실시 3개월후 4.45nM/mM creatinine, 운동실시 1년후 4.09nM/mM creatinine으로 대조군에 비하여 시간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집단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유연성의 경우 실험군에서 운동실시전 11.50cm, 운동실시 3개월후 12.78cm, 운동실시 1년후 16.52cm으로 대조군에 비하여 시간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삶의 질의 경우 실험군에서 운동실시전 20.23점, 운동실시 3개월후 17.55점, 운동실시 1년후 17.72점으로 대조군에 비하여 시간에 따라 향상된 결과를 보였으며,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요중 DPD(deoxy-pyridinoline)과 삶의 질의 지표는 운동 실시전에 비해 운동 실시 3개월 후에, 안정시 이완기 혈압과 혈청 HDL, 그리고 유연성의 지표의 경우는 운동 실시전에 비해 운동 실시 1년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노화과정에 있는 대조군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수 측정값이 대부분 변화가 없거나 저하된 반면,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에서는 향상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노인에서 운동은 신체적 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노인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KSPM-133

중독흡연자(Hard-core smoker)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General Characteristics in hard-core smokers

<u>고정애</u><sup>1)</sup>, 이준영<sup>2)</sup>, 김해준<sup>2)</sup>, 윤석준<sup>2)</sup>

(1)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2)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purpose:** Hard-core smokers are defined as heavy smokers who rarely have quitting histories, so are expected never to quit smok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materials for public health programs by analyzing general characteristics of hard-core smokers. The survey was done with 1,044 adults in Seongbuk-gu from December 20, 2002 to December 23, 2002.

method: Research subjects were composed of 58 hard-core smokers, 225 current smokers and 134 ex-smokers. Characteristics of hard-core smokers comparing with those of current smokers as well as ex-smokers were evaluated using univariable groupings and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models.

results: Study result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proportion of hard-core smokers in and over the twenties who lived in Seoul in 2002 was estimated by 5.6%.
- 2. From the unvariat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who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in smoking were age, marital status, and its education level.
- 3. The univariate analysis showed that the family-smoking was a significant factor for hard-core smokers.
- 4. While no difference was found in relation to initial smoking age, hard-core smokers and ex-smokers were more likely to have been heavier smokers than the current smokers.
- 5. Hard-core smokers had less positive attitude than others related to an